

수술없이 치료되는 경희무릅나무한의원이 함께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103-중-9769호<광고>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00325-중-6840호<광고>



지긋지긋한 척추·관절 질환 수술없는 한방치료로 환한 웃음을 되찾아 드립니다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 전방전위증, 척추분리증 포함)



요추(허리뼈) 4~5번 사이 디스크가 밀려나와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

-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도 저리고 땀이 무감각하다.
- 10분만 걸어도 엉치가 빠질듯이 아프고 허리가 무너지는 것 같다.
- 엉치 옆 고관절 쪽도 걸으면 아프거나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온다.
- 앉으면 꼬리뼈 주위가 아파서 못 견디다.
- 엉치가 시큰거리고 무지룩하게 아프거나 땀이 시리기도 한다.
- 허리를 굽히거나 걸음을 멈추고 쪼그리고 앉아서 쉬면 사라졌다가 다시 걸으면 같은 증상이 반복되고 보행거리가 짧아진다.
- 조금만 서 있거나 걸어도 허리가 힘이 없어 앞으로 굽는다.
- 오래 누우면 허리가 뻐뻐하며 힘이 없다.
- 다리가 무겁고 뻐뻐하며 힘이 없다.
- 심해지면 허리가 굽어지고 힘이 빠지면서 서서히 굽어지게 된다.
- 척추관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아프고 저리다.

허리디스크는 허리뼈를 보호하고 지탱하는 주위의 인대, 근육 등의 조직 손상에 의해 디스크가 압박을 받아 튀어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신경을 눌러 허리 또는 다리가 아프고 저리며 아침에 무겁고 뻐뻐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병이 진행되면 퇴행성 디스크로 발전하고, 더욱 더 퇴행이 진행되면 척추관협착증이 되어 결국에는 허리가 서서

히 힘이 빠지면서 앞으로 굽어지게 된다. 대개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잘 보이며, 디스크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며 약해지게 되고 따라서 4번, 5번 척추뼈 사이가 좁아지면서 척추뼈와 주변 인대 등의 변성이 일어나 양다리로는 신경을 압박하게 된다. 경희무릅나무한의원의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치료는 디스크 탈

출 또는 협착을 초래한 손상되고 약화된 요추 4번, 5번 뼈 주위의 인대, 힘줄, 근육 등 결합조직의 재건, 재생을 도모함으로써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등의 신경압박 현상을 해소시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치료 후 웬만한 등산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라 할 수 있다.

목디스크, 오십견

- 한쪽 혹은 양쪽 팔과 손끝이 저리고 통증을 느끼고 어깨가 자주 결리고 쏘인다.
- 밤에 잘 때도 어깨가 쏘이고 팔이 저려 잠이 깨기도 한다.
- 뒷목이 심하게 결리고 빠르기도 하며 항상 피곤하고 멍한 느낌의 무기력한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 선반위의 물건을 집기 힘들고, 얼굴을 씻는 것도 힘들다.
- 날씨가 추워질수록 목과 어깨의 통증이 심해진다.
- 팔을 전후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어렵다.

경희무릅나무한의원에서 목디스크를 유발적으로 지속력을 갖는다. 치료의 난이도 역시 목 주위의 손상되고 약화된 인대와 근육, 힘줄, 신경 등 결합조직의 재건, 강화 하리디스크 보다 쉽게 치료됨을 확인할 수 시키는 치료를 함으로써 그 치료효과가 장 있다.

무릎관절염



퇴행성 무릎관절염은 오랜 시간 무릎관절의 과다한 사용이나 노화로 인해 약화된 무릎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신경조직이 무릎관절을 보호하고 지탱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이다. 이로 인해 무릎뼈 사이의 완충역할을 하는 연골이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연골은 닳게 된다. 또한 근육과 인대, 힘줄 등 조직의 손상으로 다리에 힘이 없고 신경조직의 손상으로 시큰거리거나 쏘이는 것 같은 통증을 유발하며, 혈액 장애와 불순물이 합쳐져 무릎에 물이

-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다.
- 쪼그리고 앉을 수 없고, 손을 짚지 않으면 못 일어난다.
- 계단을 내려가거나 오를 때 아파서 계단만 보면 도망가고 싶다.
- 무릎 뒤쪽이 땀이 나고 다리가 무겁다.
- 앉았다 일어나거나 걷다보면 두둑 소리가 잘 난다.
- 조금만 오래 걸어도 걸음걸이가 무겁고 뻐뻐하고 쳐진다.
- 밤이 되면 쏘이고 아파서 잠을 잘 수 없고 울기도 한다.
- 무릎에 물이 차거나 붓고 물을 빼고 나서도 또 자꾸 붓는다.
- 걸을 때마다 뼈가 맞닿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저리다.

차고 붓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괴로운 증상들을 유발하는 "퇴행성 무릎관절염"은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성질환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리한 직장일과 과도한 운동, 다이어트, 비만, 하이힐 등의 잘못된 습관 등으로 인해 점차 젊은 층까지도 퇴행성 질환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관절내시경이나 인공관절 수술 이후에도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질환이 바로 무릎관절 질환이고, 이처럼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던 질환이기도 하다. 경희무릅나무한의원에서 그동안 관절염 치료에 집중함으로써 축적된 풍부한 치료경험과 검증된 환약 및 침구치료를 통하여 무릎 주변 조직의 염증을 제거하고, 근육, 인대 및 주변 조직을 활성화시켜 치료하는 동시에 연골과 뼈를 강화하고 보충시킴으로써, 수술 없이 무릎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법은 많은 환자들에게 지긋지긋하고 고스스러운 무릎관절 질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퇴행성 무릎관절염, 척추관협착증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경희무릅나무한의원의 대표 원장 "등산도 즐기며 살 정도로 튼튼해 지시길 바랍니다"

Q 다들, 퇴행성 무릎관절염은 치료 가 어렵다고 하던데?

A 무릎관절은 사람의 인체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 중 하나입니다. 체중을 받쳐주고 하고 여러 가지 동작이나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정교한 공학적 구조이거든요. 굉장이 어렵다는 척추관협착증이나 목, 허리 디스크가 무릎관절 치료와 비교해도 훨씬 쉬운 정도입니다.

Q 그토록 어려운 관절 질환이 어떻게 깨끗이 치료되나요?

A 관절 주위의 근육, 인대, 힘줄, 신경 등 조직의 재생효과를 내고 남은 연골 조직의 강화를 통해 약화된 무릎을 강건하게 하여 그 원인을 치료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되고 나면 뭘 수도 있고 가벼운 등산이나 축구, 조깅, 농구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을 대폭 향상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환자 자신의 성실한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Q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져서 걸을 때마다 뼈가 맞닿는 듯이 아픈데 어떻게 수술없이 치료되나요?

A 연골은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닳아서 퇴화되는 데다 관절 환자는 닳는 속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 빠른 편이며, 문제는 관절 주위의 힘줄, 신경 등 결합조직

서 무릎관절 내시경수술을 권유 받았는데도 치료되나요?

A 충분히 치료 가능하며 환약에 의해 더 이상 연골막이 찢어지지 않도록 강화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또한 연골막이 찢어지게 하는 발병 원인까지 치료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합니다.

Q 치료하기 까다로운 경우는 없었나요?

A 경희무릅나무한의원에서 지금까진, 불치라 알려진 퇴행성 관절염과 디스크에 대하여 높은 치료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류마티스 관절염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Q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우리는 관절염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연 자부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시작했고 많은 환자분들에게 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 분들이 다양한 치료를 해봤지만 근본원인을 치료하지 못한 채 고통을 참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먼저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가진 환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드린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Q 저는 무릎관절로 3~4년 여러 치료를 받아 연골막이 파열 되어



연골이 많이 손상되고 관절염이 좋아진 상태

허리디스크! 무릎관절염! 이제는 고통 끝!

수술없이 치료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치 및 주차 안내 : www.murup.co.kr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3길 9 롯데캐슬클라세 2층
지하철 선릉역 10번 출구 도보 1분

전화 상담 : 02)3437-7577~8

(목, 토요일 오후 3시, 평일 오후 6시까지 진료)
퇴행성 무릎관절/허리디스크 치료

